

## 구 이마이 가문 주택·미노사료관/개요

현재의 미노 시내에 있는 와시 도매상은 18세기 후반 이후 막대한 부를 쌓아올렸습니다. 그중에서도 가장 번영했던 집안이 촌장을 맡았던 이마이 집안으로 이 사실은 시내의 역사적인 지구의 중심에 커다란 저택이 있다는 사실에서도 알 수 있습니다. 에도 시대 중기에 건축된 이마이 가문 주택은 건물이 도로에 면해 있는 폭을 바탕으로 지조(토지 수익에 대해 매기는 조세)를 결정했던 당시에 거리에서 가장 넓은 폭을 자랑하고 있었습니다.

### 작업용으로 설계된 주택

폭이 넓은 정면 현관을 들어가면 봉당이 있고, 여기에서 장사를 했습니다. 이 봉당은 상품의 운반이나 접객을 위한 공간으로 주택 안쪽까지 이어져 있습니다. 평균적인 상인 주택의 폭이 약 6~10m 였던 데 비해 이마이 가문 주택의 폭은 22m에 가깝습니다. 이 구조는 부의 상징이었을 뿐만 아니라 와시를 실어 나르기 위해 커다란 짐수레가 주택 뒤쪽 창고에 출입할 때에 실용적이었습니다. 폭이 넓은 외팔보식 정면 문은 천장에 걸어 오늘날의 차고 문처럼 열 수 있으며, 문턱은 짐수레가 현관에서 직접 들어올 수 있도록 떼어낼 수 있었습니다.

생활공간은 한 단 높게 되어 있으며 다다미가 깔려 있었습니다. 현관에서 들어가면 바로 보이는 곳에 있는 좁은 사다리는 바로 위층으로 이어지는 작은 출입구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에도 시대(1603~1867년)에는 10세 정도의 어린아이가 햇수를 정해놓고 하는 고용살이나 사용인으로서 상인 집안에서 일했습니다. 이 아이들은 뛰어다니며 심부름을 하거나, 접객을 하거나 또는 가사를 돕는 것이 일반적이었으나, 이 사다리는 밤이 되면 바로 위층에서 자고 있는 고용살이꾼들이 도망치지 못하도록 치워두었습니다.

### 공적인 공간과 사적인 공간

방문객은 현관에서 신발을 벗으면, 현관 바로 옆에 있는 조바(장부를 기입하고 회계를 보는 곳) 위로 올라오게끔 안내를 받았습니다. 조바에는 다다미가 깔려 있고 사무용 책상과 화로가 놓여 있으며, 손님은 화로 곁에 편안히 앉아 담배를 피우며 장사 이야기를 시작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단골 손님 등은 조바 뒤에 있는 작은 다실로 안내되기도 했습니다. 또한 중요한 손님에게는 공적인 공간을 지나지 않고 도로에서 직접 들어올 수 있는 별도의 현관이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또한 다실의 장지문에는 혼미노시가 사용되었습니다.

#### 창고와 정원

정원을 끼고 주택 뒤에 있는 네 군데의 창고는 와시와 귀중품 등의 보관에 사용되었습니다. 안의 물건들을 화재로부터 지키기 위해 벽에는 회반죽을 두텁게 발랐습니다. 현재 창고 부분은 편지, 그림, 사진, 모형 등을 통해 미노시의 역사를 전달하는 사료관이 되어 있습니다.

#### 방화(防火)

정원 뒤편에는 이나리노카미(풍작이나 복을 가져오는 수호신)를 모시는 이나리 신사가 있습니다. 신사 정면에 있는 석등에는 하트와 비슷한 모양이 조각되어 있어 관광객들에게 인기입니다. 이것은 사실 멧돼지의 눈을 모방한 모양입니다. 멧돼지는 산불이 나면 가장 빨리 안전한 장소로 도망치는 동물이라고 생각되었기 때문에 이 하트 같은 모양은 화재를 막는 부적으로서 신사와 사찰에서 자주 그려졌습니다.

미노 마을의 상인들의 주택 한 쪽에 우다쓰(회반죽을 바른 방화벽)를 설치하고, 화재 시에 지붕을 타고 불길이 옮겨붙는 것을 막았습니다. 이 방화벽은 이윽고 부의 상징이 되어 점점 정교한 장식으로 변화해갔습니다. 우다쓰 보전지구는 도로가 넓고 항구로 종이를 운반하는 짐수레가 다니기 쉽도록 되어 있었는데, 이는 화재가 번지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기도 했습니다.